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2월 13일

CUOMO 주지사, 운전중 문자 발송 금지 법률로 주의산만 운전을 크게 단속했다고 발표

지난 7 월 이래 약 119,000 명의 운전자들이 휴대 기기 사용으로 딱지를 떼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주의산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새 법률의 결과로, 법집행 관리들이 2011년 7월 이래 운전중 전자 휴대 기기 사용에 대해 118,757장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는 2011년 6월에 운전중 문자 발송 금지 시행을 강화하는 법률을 도입하였으며 2011년 7월에 새 벌칙안에 서명하여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운전중 전자 휴대 기기 사용을 주요 교통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 활동에 개입된 것만으로 운전자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합니다. 그 외에 주지사는 주 법규 변경을 통해 운전중 핸즈프리 장치 또는 휴대 장치 없이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데 대한 운전면허 벌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2일부터 2012년 2월 7일까지 뉴욕주는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해 7, 495장의 티켓 및 운전중 휴대 전자 기기 사용에 대해 111,262장의 티켓을 발급하였습니다.

"운전중 문자 발송은 불법이며 전주에 걸쳐 뉴요커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티켓들은 눈은 도로에 손은 핸들에 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모든 운전자들에게 보냅니다. 본인은 뉴욕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 경찰과 지역 법집행 관리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뉴욕주 경찰청장인 Joseph A. D'Amico는 "이 숫자들은 그 스스로를 대변합니다. 뉴욕 경찰들이 주의산만 운전과 싸우고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욱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데 이 법률이 도움이 될 것임을 주지사는 알았습니다. 경찰들이 계속 철저하게 이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주의산만 운전을 줄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부 커미셔너 Barbara Fiala는 "저는 운전중 문자 발송을 주요 위반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집행 노력을 강화한 Cuomo 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자동차부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는 휴대폰

사용 및 운전중 문자 발송이 야기하는 사망자 수를 낮추는 사명에 계속 전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5,500건 이상의 사망 및 440,000건 이상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자 교육뿐만 아니라 운전 행동 변경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일과 2011년 7월 11일 사이에 뉴욕주는 운전중 문자 발송에 대해 2,691장의 티켓을 발급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2일 이래 뉴욕주는 운전중 문자 발송 위반에 대해 7, 495장의 티켓을 발급하였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